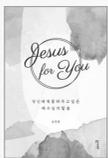


מִתְּפִלָּה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당대의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도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넉넉한 품으로 안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이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나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가서 성경을 똑바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배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인자를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나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제51권 25호

2025년 6월 22일(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일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읽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항존직 공부와 독서 모임:** 낮 12시 30분, 소예배실 및 로툰
-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27일(금)-28일(토), 해오름교회 예배당
-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혼(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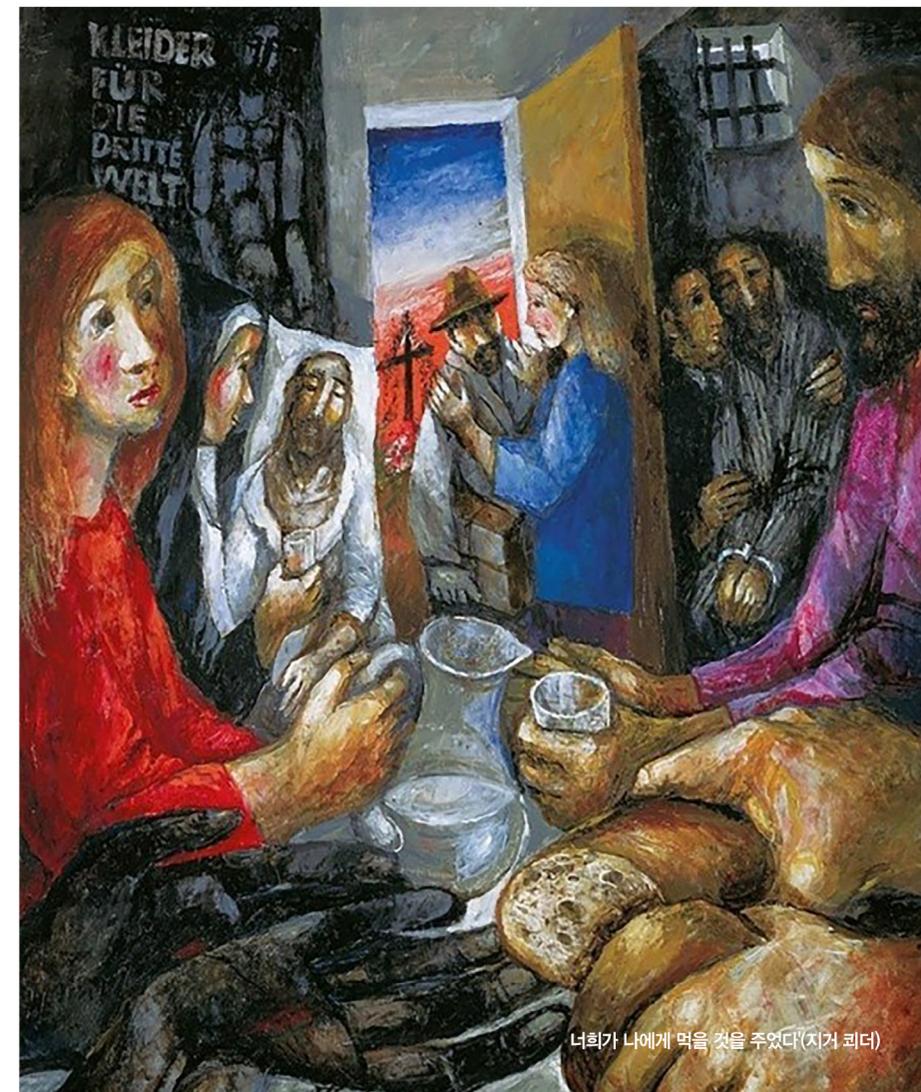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성령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바람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시원한 바람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선교회	연령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본 당	아브라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소예배실	에스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예배실	드보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전 9시	소예배실	마리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전 9시	청소년부실	한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쿼더)

주일 예배 (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께
* 입례송	주 찬양 함께
* 예배의 부름	요한복음 4:23-24 인도자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광송	12장(3절 후, 간주) 함께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함께
성시교독	시편 22편(성서일과표를 보며) 함께
감사찬송	192장(3절 후, 간주) 함께
기도	이기도 목사
* 성경봉독	이사야 65.7-9(구약 1046쪽) 인도자
특송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배유희 권사
말씀선포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송 혁 목사
결단의 찬송과 기도	290장(2절 후, 간주) 함께
봉헌	함께
성도의 교제	함께
* 교제의 찬양	382장(3절) 함께
* 축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기도 - 민경오 장로

- * 6월 안내위원 : 김보엽, 최형단, 김명숙, 유미경
- * 6월 헌금위원 : 이항재
- * 6월 주방봉사 : 4, 8구역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성모독을 자행하고 언덕 위 산당들에서 나를 모독한 그들이기에,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토틀히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씌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내게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보존해 줄 것이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의 종들이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이사야 65.7-9(메시지성서))

나눔주일

오후 12시 30분

향존직 공부	소예배실
독서 모임	로템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양	함께
기도	김정혜 권사
성경봉독	역대상 17.7-15(구약 637쪽) 인도자
말씀선포와 기도	역대기의 다윗 연약 이기도 목사
축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기도 - 김현아 집사

일상기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26일(목)	역대상 26.1-32
23일(월)	역대상 23.1-32	27일(금)	역대상 27.1-34
24일(화)	역대상 24.1-31	28일(토)	역대상 28.1-21
25일(수)	역대상 25.1-31	29일(주일)	역대상 29.1-19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난 주일 말씀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

(잠언 8.1-36)



[성서일과표/잠언 8.1-4, 22-31, 시편 8.1-9, 로마서 5.1-5, 요한복음 16.12-15]

얼마 전 잠시 해안가를 걷는데 어디선가 기분 좋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제게로 날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향기에 이끌려 따라갔더니 그곳에는 처음 보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크고 자주빛 색깔의 고운 꽃이 수없이 촘촘히 핀 향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향긋한 마음에 얼른 찾아보았더니 이름은 ‘멜(말)구슬나무’ 이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자생하며, 열매는 염주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무를 어찌 여수살이 14년 만에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그곳을 떠나지만 향기와 여운은 떠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멜구슬나무가 눈에 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쉬움을 달래려고 갑자기 15미터나 되는 큰 나무들을 옮겨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제 주위에 있었어요. 다만 제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요.” “아,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자연도 인생도 성서도 복음도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에 다가서는 첫걸음이니가요.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성서 기자의 지혜를 의인화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많은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길가의 높은 곳, 네거리, 마을 어귀, 성의 여러 출입문은 모든 사람이 명백히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공적 장소입니다. 듣고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지혜는 항상 곁에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제가 가까이 있는 나무를 알아보지 못했듯,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지혜에 맞서는 어리석은 여인은 어두운 저녁에 으밀히 소수의 사람을 자신의 사적 공간으로 유혹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혜 여인은 자신의 지식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며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나를 사랑하고 가절히 찾는 자는 자신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계셨다.” 또한 자신이 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였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실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참 좋다!”고 하셨다는 증언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신자가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8편의 노래처럼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정원이 세상을 돌보는 정원사로 불러주시는 것이 없이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합니. 그리고 지혜와 일상 곳곳에 깃들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요철이지요.

그럼 지혜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서의 첫 문장에서 사용한 ‘창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기름기와 같은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쓸데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혜의 외침은 바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잘라내고 덜어내고 있습니까?

끝으로 지혜 여인은 자신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돌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따르면 창조 질서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종말원 무사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가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부끄러워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고맙니까?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창송가 327장 역시 잠언의 지혜 여인처럼 우리가 바라는 생명 총마미,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자유와 평화가 가까이 있다고 외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지혜의 초청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살뜰.